

파킨슨병보다 지독한 산재보상 제도



김미영
매일노동뉴스 기자

2000년 고작 서른 살이었던 A씨는 미친 듯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왼손이 떨리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A씨에게 ‘파킨슨병’ 진단을 내렸다. S전자 평택공장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을 한 지 3년째 되던 해였다.

업무와 관련성 높은 파킨슨병

질병관리청은 ‘국가건강정보포털’ 홈페이지에 파킨슨병 초기 2~3년 동안을 ‘허니문 기간’이라고 적고 있다. 적은 용량의 약물로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만 허니문 기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몸이 움직이는 ‘이상운동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상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의사로부터 “이미 도파민 세포가 절반 이상 죽은 것 같다”는 말을 들은 A씨도 2021년 직장을 포기했다. 어찌다가 자신이 파킨슨병에 걸렸는지 알 길이 없던 A씨는 여러 검사를 했다. A씨 소변에서 일반인에게 검출되지 않는 무기비소가 적잖게 검출됐다. 비소는 강한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인데 A씨는 반도체공장에서 비소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병원에서는 “가족력이 없고 작업환경에서 무기비소에 노출된 것으로 보여 파킨슨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파킨슨병 환자 뇌척수액에서 비소 농도가 높다는 점에서 산재가 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일하면서 산화질소·불화수소 등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노출 기간이 길지 않다고 사유를 밝혔다. 그는 산재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지난 5월 15일 불승인 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다.

업무상질병 인정받기까지의 기나긴 싸움

파킨슨병의 업무상질병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안전보건공단은 파킨슨병의 직업적 유해요인으로 망간 등 중금속과 알루미늄, 이황화탄소, 일산화탄소,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인정하고 있다. 농약이나 살충제 같은 복합유기용제 노출도 파킨슨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미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파킨슨병에 걸려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다. 2022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만 30세에 파킨슨병에 걸렸던 노동자가, 2021년에는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에서 11년간 일한 노동자의 파킨슨병이 각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았다. 삼성전자 노동자는 발병 15년 만에, SK하이닉스 노동자는 6년 만에 법정 다툼으로 산재가 인정됐다. 지난 6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3년 가까이 반도체 레이저 제조사와 LED 제조사 등 중소기업을 다닌 노동자가 파킨슨병을 산재로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건에서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 사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산재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1년에 선 날이 단 5일에 불과하고 회사에서 유기용제 보호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은 점을 유심히 살폈다. 판사는 “비록 의학적으로는 파킨슨병의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다수의 유기용제 및 유기화합물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것이 원인이 돼 발생 또는 촉진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결했다. 그 역시 1심 판결까지 3년 6개월간 질병의 고통을 온전히 홀로 견뎌야 했다.

산재 인정 후에도 계속되는 고통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받았다 해도 고통은 이어진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금 청구 시효는 최초요양신청일부터 3년에 불과하고 승인도 소급이 돼 보험범위는 더 좁아진다. 15년 만에 산재로 인정받은 삼성전자 파킨슨병 노동자는 이로 인해 발병 초기 8년의 치료기간이 보상범위에서 제외됐다. 보상이 가능한 치료기간도 온갖 증빙서류를 내야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오랜 기간 파킨슨병을 앓아 자신의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노동자가 수 년 전 다닌 병원과 약국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서류를 작성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파킨슨병과 노동과정 사이 의학적 인과관계를 따지는 데 너무 깊이 골몰한 나머지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노동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산재보상제도의 본질을 잊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